日히에이산 학살 450주기 위령법회 봉행

아군·적 구별 없이 위령
희생자 후손들도 참여해

박영빈 객원기자


친지와 적을 구별하지 않는 평등의 정신으로 봉행된 천도재. 사진출처=교토신문

일본불교의 성지이자 천태종의 총본산인 히에이산(比叡山)은 450년 전화에 휩싸여 전소한 적이 있다. 그러나 적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위령법요를 지내온 히에이산이 450주기 위령법요를 맞아 이들의 후손을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9월 12일 일본의 '교토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히에이산 엔랴쿠지(延暦寺)에서 봉행된 법요식을 특별보도했다.

1571년 9월 12일, 당시 일본의 무장이었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히에이산의 타락을 구실로 전략적 요충지였던 히에이산을 공격했다. 당시 사료에는 3만 대군이 산에 불을 놓았고 엔랴쿠지를 비롯한 주요 전각들이 전소, 저항하던 승병들을 비롯해 강원의 학인과 사미까지 1,500명의 승려들이 참수 당했다고 전한다. 당시 사하촌의 민간인들까지 총 4천명에 가까운 희생자들이 나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10여년 뒤 오다 노부나가는 부하였던 아케치 미츠히데(明智光秀)의 배반으로 죽게 된다. 일설에는 신심이 깊었던 아케치 미츠히데가 성지 히에이산을 오다 노부나가가 잔혹하게 정벌한 것에 원한을 품어 빚어진 일이었다고 한다.

히에이산은 중세 이후로 부흥에 성공, 당시 화공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려왔다. 1992년에는 엔랴쿠지 경내에 위령탑을 조성하고 히에이산 측 희생자들과 함께 산을 공격한 오다 군을 함께 위령하는 법요를 매년 9월 12일 봉행해왔다.

엔랴쿠지 위령법요 부집행장인 이마데가와 교카이 스님은 "천태종 종조 사이쵸 대사의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끝이 없으나, 원한을 덕으로 감싸 안으면 곧 원한이 그친다' 는 유지에 따라 원친평등(怨親平等) 뜻을 담은 위령탑을 조성하고 넋을 달래는 기도를 봉행해왔다"고 밝혔다. 스님은 "450주기 위령법요는 종조 사이쵸 대사 원적 1200주년 기념행사 일환으로 진행되기에 종조 가르침을 더욱 깊이 새기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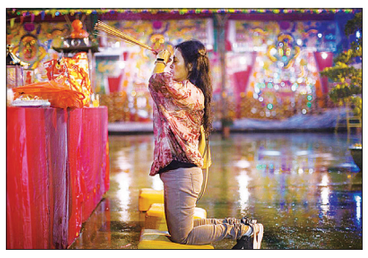
법요식에는 화공의 주모자였던 오다 노부나가 후손과 당시 관계자이자 노부나가를 죽게 한 아케치 미츠히데의 후손이 초청됐다. 특히 아케치가 대표로 참석한 아케치 켄자부로는 현재 저명한 역사연구가로 법요식 후 진행된 히에이산 불교문화 심포지움 대담자로도 참석했다.

엔랴쿠지 아미타당에서 열린 법요식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히에이산 위원들과 주요 관계자들만 모여 봉행됐으며 온라인으로 동시 중계됐다. 참석자들은 법요식 후 위령탑으로 이동, 히에이산과 오다가와 아케치가의 대표들이 함께 손을 모으는 장면을 연출했다.

법요식의 법주를 맡은 엔랴쿠지 미즈오 쟈쿠호 스님은 "지금껏 희생자나 오다군의 후손들을 법요에 초청하거나, 자발적으로 참례한 적은 있으나 오다와 아케치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의 후손이 동시에 참여한 것은 최초"라고 전하며, "히에이산 화공 당시 스러진 스님들과 무장들의 역사 위에 우리가 서있다. 이제 새로운 관계가 이번 법요식을 계기로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中, 불교 악용 인플루언서 단속

사찰 내 명품 과시 행태에 제재


기사와는 무관한 자료사진. 현재 포위안들의 게시물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사진출처=EPA

SNS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내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 일부가 대중의 관심을 얻기 위해 불교 사원과 종교 의식을 악용, 인터넷 정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9월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 등 현지 매체들은 "일부 인플루언서들이 관심을 얻기 위해 불교 사원을 이용해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사찰에서 기도와 명상, 서예, 다도 등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공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법당 내에서 한껏 차려입고 명품 핸드백을 과시한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들은 "이들은 단순히 법당에 들어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고가의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 백을 든 채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교' 를 이용해 대중의 관심을 끈 뒤 SNS를 통해 의류, 보석류, 화장품 등을 은연 중에 광고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가 이른바 '포위안' (foyuan)으로 불리는 이 같은 인플루언서들에 대해 "인기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해 불교를 악용하는 부류"라고 공식 저격한 이후 몇몇의 중국 SNS 플랫폼은 이들의 계정을 금지시켰다.

'틱톡' 의 중국 버전인 더우인(Douyin)은 48개의 포위안 계정을 제재하고 이중 7개에 대해선 영구 차단 조치를 내렸다. 또 중국의 SNS 기반 쇼핑 플랫폼인 샤오홍수(Xiaohongshu)도 포위안 관련 게시물 70개를 강제 삭제하고 계정 3개를 차단했다.

또 중국의 대표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콰이쇼우(Kuaishou)는 "가짜 이미지의 거품은 마침내 사라질 것"이라며 "종교를 악용해 마케팅하는 식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중국 매체 워커스데일리(Worker's Daily)는 논평을 통해 "실제로 물욕에 가득 찬 여성들이 성스러운 사찰에 잠입해 종교에 귀의하는 것처럼 꾸미는 것은 죄악과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잠들어 있던 성보들, 다시 세상 밖으로

日 불교성지 '쇼죠신인'서
금니사경, 서간문 등 발견


잠들어있던 보물함에서 다시 빛을 본 금은니 〈사분비구니갈마〉사경.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일본불교의 성지이자 진언종의 총본산 고야산(高野山)의 산내 사찰인 '쇼죠신인(清浄心院)' 에서 대량의 성보들이 발견됐다. 사찰과 인연이 있었던 위인들의 서간문 들을 비롯해, 금니와 은니로 쓰인 사경 등 교계와 학계가 주목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은 이 놀라운 발견을 보도했다.

고야산 산내 중심부에 자리 잡은 쇼죠신인은 9세기 중반, 진언종의 개조인 코보(弘法)대사가 창건한 암자에서 시작된 천년고찰.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참배했다는 기록이나 예술성이 뛰어난 성보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유명하다.

지난해 말, 쇼죠신인 측은 오랫동안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던 유물들과 성보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껏 개봉하지 않았던 보물함들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쇼죠신인의 마츠무라 아츠시 사무장은 "오랫동안 개봉된 적이 없어,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발견된 보물함들은 모두 목제로 길이와 높이가 50~80cm 가량 되는 것이 약 50개, 1.5m 가량의 옻칠이 된 상자도 2개 발견됐다. 보물함의 발견이 보고되면서, 고야산 대학 산하의 밀교문화연구소가 사찰측의 협조를 구해 옻칠이 된 상자들만 먼저 개봉에 나섰다. 상자 안에서는 다수의 서간문들과 족자, 사경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서간문 중 하나에서는 일본 전국시대의 유명한 무장인 우에스기 켄신(上杉謙信)의 것도 발견됐다. 우에스기 켄신은 쇼죠신인의 역사 속에 사찰을 후원한 대시주로 기록이 남아 있으며, 현재도 그 가문의 위패가 경내에 봉안되어 있다.

서간문을 해석한 밀교문화연구소의 키노시타 히로요시 연구원은 "서간문은 쇼죠신인이 켄신을 위해 기도를 봉행하고 보내온 답변과 예물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다시 공양물을 올린다는 내용" 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간문은 켄신이 젊은 시절에 쓰던 이름으로 쓰여 있어 각별하며, 만약 서명뿐만 아니라 서간문 전체가 친필이라면 더욱 귀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발견된 서간문 대부분이 전국시대의 유명 무장들, 혹은 대영주들의 것으로 밝혀져 "연구가 진행되면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던 중세 사찰과 무장들 간의 관계가 밝혀질지도 모른다"고 키노시타 연구원은 전했다.

서간문과 함께 3권의 사경 두루마리도 발견됐다. 〈사분비구니갈마법〉으로 밝혀진 두루마리들은 모두 쪽으로 물들인 종이에 금니와 은니로 사경되어 주목을 끌었다. 각 사경의 앞머리에는 금과 은으로 화려한 변상도가 그려져 있고, 금과 은으로 각 한 행씩 교차해 가며 사경됐다.

현재 학계에서는 발견된 사경들의 특징들이 '츄손지(中尊寺) 사경' 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에서 미발견의 사경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츄손지 사경은 12세기경에 금은지로 사경 된 대장경으로 전체 5,400권으로 전하나 전쟁 등으로 산실되어 아직 미발견 된 사경이 많은 것으로 전한다. 쇼죠신인 측은 "켄신의 서간은 오는 가을에 특별공개 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경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감정을 마친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플로리다 사찰방화범 체포

종교 혐오범죄 사회문제로


사진출처=AP통신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여성이 불교 사원에 화염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AP통신 등 외신이 9월 2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9월 26일 팜비치 가든(Palm Beach Gardens) 인근에서 46세 여성 메이 청(Mei Cheung)이 사찰 방화 혐의로 체포됐다.

용의자는 4개의 화염병을 사찰 밖에서 내부로 던지고 1개의 화염병을 사찰 앞에 비치된 우체통에 넣었으며, 이 장면은 사찰 CCTV에 포착됐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해당 용의자는 이미 폭탄 사용 혐의 5건과 종교 시설에 서의 재산피해 혐의 1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AP통신 등은 "해당 용의자는 지난 27일 아침 팜비치 카운티 교도소에 이감됐다"며 "변호사는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지난 8월 3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년 혐오범죄 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혐오범죄가 모두 7759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보다 6% 증가한 수치로, 2014년과 비교하면 42%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혐오범죄 중 인종·민족·혈통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범죄가 55%로 가장 많았고, 종교에 대한 범죄는 24%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이슬람 신자에 대한 혐오 범죄는 42%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에서 48%는 협박·위협이었고, 44%는 사유지나 재산의 파괴나 손상이었다.

박정현 객원기자



